

## 부부관계중 울린 휴대폰

글\_이용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신**혼의 28세 R씨는 벤처기업에서 성공을 이룬 신세대 신랑이다. 전산 관련 업무를 정리하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해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났다고 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고민이 생겼다. 결혼 6개월 만에 당하게 된 성기능장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부부생활중에 휴대폰 한 통을 받은 것이 그만...”

결혼 3개월 쯤 어느날 심야에 사무실에서 걸려온 급한 휴대폰 한 통을 받았다. 마침 부부관계중이라 곤란하였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부부관계를 멈추고 거실에서 전화로 일을 해결한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미 흥분감도 없어졌고, 사실 부부간에 ‘그럴 수 있는’ 하룻밤이러니 하며 잠을 청하였다고 한다.

R씨는 다음날의 잠자리에서 자신의 반응이 무뎠던 것을 느꼈지만 자신에게 성기능의 문제가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를, 또 하루를 그러려니 하며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회복되지 않아 당황스럽고, 절망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업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첫면담시 R씨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날 밤의 일을 상담 후 기본적인 배정질환 검사에서 정상소견임이 확인되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하였다. 남성들의 성기능이 심리적인 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면서 ‘수행불안, 기대불안’ 심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구약물치료를 겸한 상담치료를 반복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심리적 불안상태의 악순환의 고리에 얽혀있던 R씨는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겪었던 악몽같은 몇 개월간의 발기장애가 운전중에 예상하지 못하고 만났던 아주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젊은 남성이 일시적인 심리적 원인에 의한 발기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몹시 당황해 진료실에 들어서기까지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휴대폰 열풍 속에 ‘휴대폰 공해’라고 할 만큼 전국민피해가 많은데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피해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통신망과 전산망의 울가미를 가정까지 가져가야 되겠는가?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까보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휴대폰 전원 끄기’ 운동으로 말이다. ☎

